

말씀 풍경 (The Precious Book)

2018.09.05 - 10.17

지난 해 여름,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셨다. 당시 어성경으로 독학하던 나에게 너무 반갑고 유익한 내용이었고 전도사님이 영국 옥스포드에서 공부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더욱 발동하였다. 오빠가 출장갔을 때는 저녁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몇 번 참석을 못할 뻔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상미언니, 지은이가 태리를 돌봐 주어서 아침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 노트를 정리하게 된 배경은 우선 내용이 좋았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나눠주신 유인물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전도사님이 유학을 오래하셔서인지 너무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고 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조금만 보완하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았다. 회사에서 보고서 쓰고 고치고 했던 일종의 직업병에서 기인한 것도 있겠다.

그러나 이 노트의 목적은 결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내용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힌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다. 나는 다만 내가 이해한 바를 토대로 읽기 쉽게 정리해서 내용을 깊이 학습하고 싶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쓰느니 과감하게 삭제하기도 하였고 또 내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리 없으므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또 주제가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것인만큼 설교 말씀이나 큐티와 같은 깊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숲을 보듯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점과 성경의 큰 덩어리?들이 말하는 핵심을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내게는 분명 도움이 되었다.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고 더 궁금한 내용도 많지만 그것은 앞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가면서 천천히 답을 찾아가 보려 한다.

[1] Intro

□ 성경의 역사적 무게

성경은 오랜 세월을 걸쳐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책이다. 옛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치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른 문명권과는 달리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 건조한 기후와 풍부한 갈대를 기반으로 기록 문화가 발달했던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지리적, 기후적 조건이 기록 문화가 발달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깨진 그릇이나 동물 가죽에 기록을 남겼는데 가죽은 수명이 길어야 30-40년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자연적으로 전해진 글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정성과 수고를 통해 지켜져 온 글이다. 성경이 보존될 수 없었을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성경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해진 글이 아니며 따라서 의미 없는 글은 하나도 없다. 신앙인들이 반드시 후대에 전하고자 피와 땀으로 '사수해 낸 결과물'이다.

□ 성경의 인간 저자들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옷입고 친히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 저자들이 실제 체험한 사건이자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다.

[2] 창세기

□ '온 세상'의 하나님 (창 1-11장) | 인류의 고대사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

창 1-11장은 과거에 대한 묘사체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온 인류에 해당되는 고대사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여러 가지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을 추론할 수 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세상의 질서와 이치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왜 인간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왜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가? 왜 인간은 고통이 있어야만 해산할 수 있는가?
악의 궤양 앞에 인간은 승산이 있는가? 힘의 논리가 진리인가? 인류는 왜 여러 언어와 민족으로 나뉘어 있는가?
이 모든 질문과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등등*

□ '나'의 하나님 (창 12장 이후) |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의 이야기

어제라는 뿌리와 오늘의 우리

창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개인(수호신), 둘째는 민족, 셋째는 온 세상의 신이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친밀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먼저 등장하신다. '우리'의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동일한 원리로, 친밀한 관계 이후에 율법이 온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교육할 때 조상들의 비범한 스토리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통해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한마디로 멋이 없다. 과거 이스라엘 족장들은 재산도, 자식도, 땅도, 세력도 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뚜렷한 계획도 없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왔고 가나안 출신도 아니었으며 애굽을 의지할 형편도 안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소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해답을 찾았다. 나이들기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사실상 정치 혁명의 실패자였던 모세, 눈에 띄지 않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다윗, 출신이 불분명한 여러 선지자들과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신 예수까지... 성경은 이 이상하고도 감격스러운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3] 출애굽과 율법

□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약 400년간 노예로 살게 된다. 옛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애굽 왕자들은 왕이 되기 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게임 경기하듯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는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유물 중에는 샌달 밑바닥에 가나안 노예들로 추정되는 그림이 그려진 것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아래 문헌을 보면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나는 내 칼이 죽이지 않고 살려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돌아왔다. 그들의 손은 등 뒤에 묶인 채로 내 말들을 등졌다. 그들의 처자식들은 수만하였고 그들의 가족은 수십만이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내 이름으로 된 성들에 가둬 놓았다. 그들 중에는 최고 궁수들도 있었고 족장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낙인 찍히고 노예가 되었고 내 이름을 그들 몸에 새겨 놓았는데 그들의 처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노예 삼아 두었다.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3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시키신다.

□ 1. '우리'의 하나님 | 하나님의 이름과 공동체의 언약

일반적인 역사서는 왕가의 이야기, 즉 제도권의 역사인 반면, 출애굽 이야기는 '비제도권의 역사'다. 애굽을 떠나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문서로 기록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유월절 명절 때마다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며 후대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쳤다. 즉, 출애굽 이야기는 가정을 중심으로 구전되어 온 '공동체의 기억'이다. 유월절 만찬의 핵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되새기는 것이다.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되새겼다.

출애굽 이야기는 율법으로 이어진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이 아니라 조상들을 통해 간접 경험한 2세대였다.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는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동기 부여원이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 23:21)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썰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9:33-37)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 5:1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위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 10:17-22)

율법의 내용을 보면 종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집 주인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다. 노예였던 그들을 주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복음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율법을 잘 해석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보인다.

> 여호와의 이름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신의 참 이름을 알면 특권을 얻는다는 문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곧 하나님과 모세가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의미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학비를 달라고 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우리가 언약 안에서 생긴 권리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다.

※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자음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여호와'가 정확한 발음인지는 알 수 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에 '하셈 (the name)' 또는 '아도나이 (나의 주)'로 대신 표기하였다. 이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음으로만 된 원어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 '여호와'가 되었는데 실제로 무엇이 정확한 발음인지는 알 수 없다.

➤ **공동체의 하나님**

족장시대의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과 이삭 편이었다. 그러나 율법서의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는 엄격한 분처럼 보인다. 자녀가 하나만 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두 자녀가 서로 싸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처럼 개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특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므로 공정함에 무게가 주어진다. 공동체 안에서 율법이 필요한 이유다.

□ **2. 공동체 속의 율법**

율법은 당대에 보편적으로 지켜진 법이라기 보다는 종교적 가르침의 기능을 더 많이 수행했다. 따라서 율법을 해석할 때 그 안에 담긴 “법 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의 정신 자체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한 부분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기록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할지어다 (레 11:44-45)

위의 말씀처럼 기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다. 율법을 지켜 기록해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처럼 기록해지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는 로마의 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었는데 율법의 정신을 행한 것이 곧 그 구원의 증거로 나타났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좌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눅 19:9-10)

➤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 정결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의식이다. 예식적 정결은 그 본질이 아니다.

기본 개념

-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심.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장소, 시간, 사람)이 있을 때 가지는 특수성.
- 정결: 거룩해지기 위한 기본 조건 (일상의 범주)
하나님과의 접촉에 용납할 수 없는 부정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
- 부정: 정결을 방해하는 장애물. (비일상적 상태)
(도덕적 부정에는 피가 필요하고, 예식적 부정은 씻으면 됨.)

대표성

- 성소 (성막과 뜰):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장소 → 온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장소
- 속죄일: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시간 → 1년 중 모든 날을 대표하는 날
- 대제사장: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사람 →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 부정, 죄 → 죽음 / 정결, 거룩 → 생명
- 피 → 생명의 힘 → 거룩 → 하나님께 속함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창 9:5)

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접촉이 있는 발판을 상징한다. 왕의 의자 아래에 왕의 발이 닿는 발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의자가 필요 없으시니 법궤가 곧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상징한다. 이 법궤에 피를 뿌리는 예식은 죄를 생명의 상징인 피로 덮어서

죽음을 덮는다는 상징적 언어이다. 무섭고 잔인한 의식이 아니라 생명의 힘으로 사망을 덮음을 상징하는 생명 승리 예식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흘리시자 곧 성막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전개는 뽕뽕맞은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상징적 언어이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 27:50-53)

➤ 용서의 조건 | 선물과 화해

용서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흠 없는 짐승을 죽여 태우는 번제에는 이러한 용서의 원리가 들어있다.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이 잘못된 사람에게 먼저 “밥 사”, “커피 사”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위한 조건을 먼저 제시해 주신 것이다.

흠 없는 재물의 피가 온전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함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가르치지 않으셨고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19:30)

하나님은 재물의 수치와 절규, 죽음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 받으셨다. 그리고 노아를, 아브라함을,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 가족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삼아 주셨다.

[4] 역사서 - 오늘의 비극으로 해석한 어제의 영광

□ 신명기적 역사관

역사서는 ‘기록된’ 역사다. 따라서 기록한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성경 속 역사서의 보존 목적은 오차 없이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 보다는 신앙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 한 예로 예루살렘 점령에 대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서로 다르게 언급되어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보존한 것은 핵심이 오차 없는 사실 전달이 아닌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명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기후적, 질병 위생적 안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왕하 21:14-15)

□ 1)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로 부터 빼앗아 주신 땅이다.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의로워서도 아니라 가나안의 악이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원하셨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가르침에서 떠난다면 (자신의 ‘짠 맛’을 잃어 버린다면) 그 땅에 거주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나아가

최악의 상황에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으시다. (경고의 메시지)

□ 2) 사사기

사사 시대는 연합된 국가라기 보다는 신앙으로 뭉쳐진 부족들의 연합에 가까웠다. 사사는 부족의 족장 개념으로 평화의 때에는 재판장, 위기의 때에는 구출자 역할을 하였다. 즉, 사사는 왕처럼 계승되는 리더십이 아닌 개인적 리더십이었으므로 사사 시대에는 지리적 권력의 중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사기는 개별적인 사사들의 이야기 모음집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연대기 순이 아닌 신명기적 역사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순서로 기록된 것일 수 있다. 어쨌든 비극적 스토리로 끝난다.

사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등장한다. (사사기 2:6-3:6)

-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길(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잊음.
-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변 세력들에게 침략을 당함.
-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구해달라고 외침.
- 여호와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주심.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후렴인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왕이 없던 시절에도 이스라엘에 무법한 문제가 존재했으며, 왕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무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한다.

□ 3) 사무엘서

선지자의 시대와 왕의 시대가 함께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다. 진짜 의도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을 원했던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동쪽의 암몬과 모압, 서쪽의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필요 시에 출정할 수 있는 정규군 시스템을 원했다.

그러나 역사서 저자들의 시선은 달랐다. 진짜 문제는 암몬이, 모압이,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했다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게 만드는 왕이었다고 역설한다. (역사서는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역사서의 저자들은 강력한 왕이나 성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무엘서에 드러난 군주제에 대한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완벽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업적으로만 보면 다윗은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예루살렘을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고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한 왕이다. 다윗의 등장 초기, 출신이 미약한 목동에서 죄없는 권력 싸움의 피해자로 묘사될 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반면, 힘의 정점에 있을 때 밋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의 도덕적 흠결을 무서울 정도로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훗날 솔로몬의 어머니가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어쩌면 치부일 수도 있는) 사실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 역사서 저자의 관심은 완벽한 왕 다윗 보다는, 출신이 미약하고 연약한 다윗을 높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있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출신이 제각각이나 오직 예수님만 따랐다.

□ 4) 열왕기서

왕가의 기록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왕으로 기억했지만 (지혜 장려, 성전 건축) 신명기적 사관으로 비춰진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신 성공에 취해 여호와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 (타국과의 정치적 혼인으로 인해 이방신 유입, 강력한 왕권 유지를 위해 세금과 노역을 가중시켜 사회 계층간의 분리를 초래함.)

군사 및 정치적 힘으로만 따지면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영웅들이었다. 남유다가 ‘다윗의 집’이라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으로 불렸는데 이를 보면 오므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 저자들은 그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 그레보야 사마리아는 결국 앗수르에 멸망했고, 2)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3) 여호와를 떠남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반면, 히스기야는 야망 때문에 나라를 맡아먹은 왕이지만 남유다 말기의 성경 저자들은 그의 신앙에 더 초점을 맞췄다. 히스기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싫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예루살렘이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생존한 것에 대해 히스기야의 신앙의 관점으로 설명했다.

성경의 저자들은 언제 사라질 지 모르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출애굽에서부터 당시 시점까지 정리하면서 (당시는 바벨론이 강성해지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리던 때였다)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였다. 오늘의 비극은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풍요와 평안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역사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 오늘에까지 전해진 기록이다. 너희들은 결코 우리처럼 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암몬이, 모압이, 블레셋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다.

[5] 선지서

□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는 신앙도 있었던 것이다. 신앙 공동체의 자정적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바깥으로부터 와서 고인 물을 열어버리는 외침과 선포가 있었던 것이다. 즉, 실세들의 주장이 아니라 외로운 외침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을 대변한 선지자들이 받은 대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예로, 바알신 숭배를 거부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웃사이더가 되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당시 세력자들로부터 많은 방해와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왕가를 비판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당대 왕실 역사에 기록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변방의 목소리는 후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읽고 듣고 따르는 경전이 되었다.

□ 예언 앞에서 쪼개지는 거짓된 현실

1. 제도권 내의 선지자들과 독자적인 선지자들

당시 제도권 내에서 활동한 왕실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역사서와 선지서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거의 맹목적으로 왕실 정책을 지지하고 선전하였다. 반면, 참된 선지자들은 대개 다양한 직업과 성별을 가진 제도권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 예로, 아모스는 부유한 목자, 미가는 가난한 농부, 이사야는 왕실과 성전에 들락거렸고,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또, 왕실 선지자들은 모두 남성이었던 반면, 미리암, 드보라, 이사야의 아내였던 홀다와 같이 여자 선지자들도 있었다.

2. 킹 메이커와 킹 브레이커

당시 왕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쁨 부음을 받기도 하였고 왕좌에서 몰아냄을 당하기도 하였다. (사무엘 - 사울, 나단 - 다윗, 엘리야와 미가야 - 아합, 엘리사 - 아합의 집, 이사야 - 아하스와 히스기야, 예레미야 -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

3. 자연 숭배(바알)에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 엘리아가 제단을 쌓고 불 붙이 대결을 한 것은 그 시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행동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인격체로서의 바알이 아니라 날씨와 번개,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서의 바알을 숭배했는데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신앙은 있을 수 없음을 선지자 엘리아가 선포한 것이다.

또한 엘리아가 호렘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현세를 떠나 자연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깊숙이 간섭하시는 분임을 말해준다.

□ 선지자들의 메시지

1. 고대 선지자들의 시대적 상황

- 앗수르 사대 | (북이스라엘) 아모스, 호세아 / (남유다) 이사야, 미가 (니느웨의 몰락) 나훔
- 바벨론 사대 | 하박국, 예레미야 (친애굽파 vs. 친바벨론파), 대상 독자는 포로기 유대인
- 포로기 | 에스겔
- 포로기 이후 | 학개, 스가랴 (더 나은 미래) / 요엘, 말라기 (먼 미래에 대한 소망)

2. 윤리적 타락과 거짓된 신앙

앗수르의 위협이 큰 문제로 대두되기 전, 선지서들은 주로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 힘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고 개인/국가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아모스, 이사야, 미가)
- 우상 숭배. (호세아)
-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부패는 종교 예식으로 덮을 수 없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성전 예식과 제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는 당시 통념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음.)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 신의, 정결함, 인애임. (열방의 본이 되기를 바라심.)

3. 제국의 운명과 시온의 운명

선지서는 열방의 제국들은 여호와와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 앗수르라는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빗어가시는 것이며 시온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한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단순히 패권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달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기댄 신앙의 논리로 바라 보았다.

[6] 지혜서

지혜서는 흔히 잠언, 전도서, 욥기를 가리킨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자칫 지나칠 수도 있지만 지혜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인의 지침이 되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다. 지혜서의 초점은 한 개인 또는 사회가 성공적인 삶을 영유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성공적인 삶이란 풍성하고 의미있고 평안하고 생명이 있는 삶이다. 지혜서의 특징은 율법서나 역사서처럼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명) 동등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 - 잠언

오늘날 우리는 결말에 초점을 두는 문화에 살고 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오늘'의 삶의 의미에 대해 가르쳐 준다. 매일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잠언의 구조를 보면 1-9장은 10-31장에 등장하는 개별적 잠언에 대한 긴 서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잠언은 일반적인 삶의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 속담의 전형적 형식인 흑백논리의 힘을 빌리고 있다.

1. 지혜의 의인화

잠언의 서론에서 지혜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여인으로 묘사된다. (히브리어로 지혜는 여성형 명사임) 이 여인은 흔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에 있지 않고 길거리, 돈이 오가는 장터, 법이 집행되는 법정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정교하게 쓰여진 글로 지혜를 의인화하여 지혜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남녀 간의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님.) 즉, 지혜와 결혼해서 지혜를 평생 가지고 살면 지혜가 너의 집을 세우게 하고 네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네 자녀를 잘 키우고 궁핍을 배풀게 해서 좋은 명성을 가지게 해 줄 것이라는 일종의 비유다.

2. 의인과 악인

여호와와는 의로움을 수호하는 분이시고 악인은 갑자기 망한다고 가르친다. 속담의 특성이 그러하듯 잠언은 세상의 원리를 간결하게 명시할 뿐 그 이유나 당위성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3. 정직한 돈과 그릇된 돈

잠언은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번 돈은 좋고 근심을 주지 않으며 반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말한다. (잠 10장)
그러나 그릇된 방법으로 번 돈은 결코 유익한 재산이 아니며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잠 10-11장)

4. 선한 자의 지혜있는 말과 악한 자의 어리석은 말

의로운 사람의 지혜있는 말은 가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며, 유익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 반면, 악인의 말은 가치가 없고 악한 뜻이 숨겨져 있다. (잠 10장)

5. 왕의 길

잠언 31:1-9 말씀은 미래의 왕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잠언에 들어있는 이유는 모든 평범한 사람도 왕과 같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성적 문란도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보지 않고 왕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로 설명한다. (잠 31:3) 술을 마시는 것 또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프로 정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잠 31:4-9)

□ 법칙의 예외 - 전도서

잠언의 명확성과 흑백논리를 의도적으로 보완하듯, 전도서는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확실한 것이 없는지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 인간의 노력과 업적의 허무함 → 성취에 이어 오는 걱정, 고민, 괴로움
- 인간에게는 가려진 미래 →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 수 없도록 가리셨음
- 세상에 만연한 불공정과 불의 →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름
- 재물의 덧없음 → 죽으면 전부 다 남의 것이 됨
-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악인에 대한 형벌 →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체감되는가에 대한 질문
-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죽음이라는 운명 → 의인도 악인도 모두 죽기는 마찬가지
-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확실히 주시는 변수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 9:7-9) 미래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즐겁게 영유하라는 메시지다.

□ 법칙의 악용 - 욕기

욕기는 의인은 행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잠언의 가르침이 때로는 악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욕의 친구들은 욕을 위로하고 욕의 가족의 죽음을 곡하기 위해 찾아 왔지만 오히려 욕에게 죄가 없는지 추궁?하고 있다. 복 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의인은 아니며 벌 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악인은 아니다. 흑백논리로 표현된 잠언의 논리를 반대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타인의 인생에 대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섭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7] 복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막 1:1)

□ 복음서의 서술 시점과 내용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 어느 정도 하나의 체계로 정리가 되고 난 후 쓰여진 글이다.

1. 사도들 스스로에 대한 회고

복음서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을 자거나, 도망가는 등 우스꽝스럽고 답답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이 어리석고 욕심이 많았으며 화목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했음을 같이 전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함께 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전한 것이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다.

2. 과거의 현재의 예수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예수님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현재의 예수님이 함께 겹쳐진다.

□ 복음의 구성

1. 예수님의 탄생

특별한 탄생은 그 인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암시한다. (예: 이삭, 삼손, 사무엘)

2. 세례 요한의 비주류 신앙 혁명

1)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 - 구약 선지서에 이미 종말론이 있었으나 안일한 태도였던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때가 가까움을 알림.

2)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 회개를 강조함. 당시 여러 종파(에세네파, 쿨란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도 회개를 강조했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차이점이 있었다. 즉,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세리나 창기, 로마 군인 같이 사회의 모든 부류와 계층에 열려 있다. 학력, 지식 등 외적 조건이 아니라 회개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오면서 파격적으로 부흥한다.

3) 예수님을 소개

3.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 1) 예수님의 세례 - 참된 회개를 믿는 세례 요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왕이 되어 주신 사건이다. 이는 조출하지만 화려한 왕의 등극식이었다.
- 2) 예수님의 정체성 - 의롭고 정의로운 왕. 율법학자 중의 율법학자. 지혜서 전통의 생활화. 선지자 중의 선지자 (모세를 연상시킴). 요나를 연상시킴.
→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4.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저항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당시 예루살렘 실세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을 안고 가셨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실권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의 미움을 피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5. 부활과 승천,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고 통치하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눅 24:26-28)

[8] 서신서

서신(편지)이라는 매개체의 특성상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알지만 제 3자가 읽으면 모르는 내용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된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렌즈
2. 그 렌즈로 보고 해석한 신앙 공동체들의 상황

□ 한 가지 복음, 만 가지 상황 - 초대 교회의 신앙현장 탐방

복음은 하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배경과 그 과정은 매우 다양했다.

1. 로마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안식일, 절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적으로 더 우세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과 과연 어떻게 융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바울은 할례나 음식, 절기와 같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외적인 종교 의식이나 개종 조건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내적인 변화에 있음을 전한다.

2. 갈라디아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직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친절하게 자신의 목회 선교에 관한 신념을 설명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가르쳐 준 곳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다시 성인 할례를 받는 문화를 만들고 있었다. 바울은 이를 단지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아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문제로 보았다.

3. 고린도서

그런가하면 신앙의 길머이 제대로 들어서 자아도취로 변하는 교회도 있었다. 신앙을 자기식대로, 고린도식대로 하겠다는 정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식 헬라 철학으로 변질. 성찬식도 주요 멤버는 특식으로 나머지는 남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변질. 교회 지도자가 연예인처럼 우상화. 성적 문제. 즉흥적 노래로만 예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없는 허울만 좋은 신앙을 문제 삼았다. 뿌리를 모르는 근본 없는 신앙, 실체가 없이 관념적이기만 한 사랑, 그로 인해 생기는 윤리적 경계의 붕괴,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마약 같은 예배의 형태를 사도 바울은 지적했다.

□ 역사의 반복과 우리의 숙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신앙 공동체들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판단이 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로 설득하고 가르쳤다.

다양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다. 여러 가지 개인적, 공동체적 상황에 대한 답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외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질문에, 로마 교회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가?’,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정통파인가?’, 고린도 교회는 ‘누가 헬라 철학자들처럼 지혜롭고 교양 있어보이나?’라고 논쟁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열심을 서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가장 낮아져야 한다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자 신앙의 색깔과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다.